

사서도 비정규직 비중 증가세... 일자리 전망은 밝아

1300여명 조사결과, 업무 위한 대학 교과과정이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 많아

도서관 사서 취업자들도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서들은 업무를 위한 대학 교과과정에 대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도서관협회와 함께 지난 7~9월 문헌정보학과 학생 및 사서, 유사직종 종사자 1300여명을 대상으로 사서취업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 문헌정보학과 졸업자들의 취업률은 ▲2013년 64.0% ▲2014년 58.4% ▲2015년 47.8% 등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전문대 졸업자 역시 ▲

2013년 69.4% ▲2014년 68.5% ▲2015년 60.0%로 감소했다.

또 전국 공공도서관의 비정규직 비중은 ▲2012년 59.6% ▲2013년 59.7% ▲2014년 61.5%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학생들의 경우 가장 취업하고 싶은 곳으로 공공도서관(27.4%)을 선택했으며 이어 대학도서관(19.1%), 국가도서관(18.8%) 등으로 답했다.

학생들이 직장에서 가장 희망하는 업무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이었고 이어 '열람 및 대출업무', '참고봉사업무' 등의 순이었다.

대학 교과과정에 대해 학생들의 경우 '적절하다'는 응답이 46.0%로 '적절하지

못하다'(12.0%)는 응답보다 많았지만 사서로 일하고 있는 이들의 경우 '적절하지 못하다'(23.8%)는 답변이 '적절하다'(17.3%)는 응답보다 많았다.

추가되어야 할 교과과정에 대해 학생은 '전자정보 조직 및 서비스',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 등의 순으로 대답한 반면 사서는 '문화프로그램', '홍보 마케팅' 등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꼽았다. 취업 준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학생과 사서 모두 취업 정보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노영호 건국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사서의 취업률이 감소되는 것은 우리나라 취업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

문"이라며 "그러나 지식정보화 사회에 도서관과 유사직종이 증가하고 '모바일, 거대자료(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키워드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서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넓어지고 있어 취업 전망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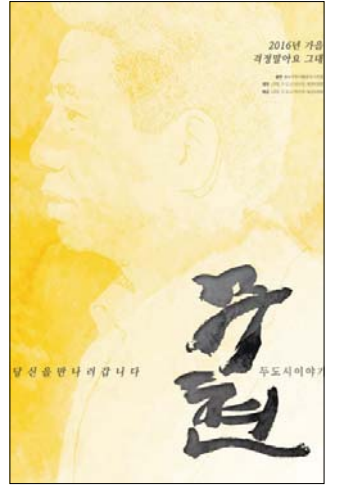
문영호 문체부 문화기획정책관은 "이번 조사결과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해 개선점을 짚어보고 사서들이 현장업무에 도움이 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양성 과정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사서취업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서거 7주기

내일 '무현, 두 도시 이야기' 상영

전주영화제작소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은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7주기·탄생 70주년을 맞아 <무현, 두 도시 이야기>를 오는 27일 상영한다.

이 작품은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담은 최초의 다큐멘터리 영화로, 영·호남의 구분 없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했던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과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조명한다. 또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도 담어낸다. 영화는 평범했던 인간 노무현의 이야기이자 그가 남긴 우리 삶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다.



영화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참여한 3,137명의 후원인과 국회의원, 문화계인사들이 포함된 배급위원회를 발족하며 많은 관객과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홈페이지 <http://theque.jff.or.kr> 참조
문의 063)231-3377 /정해은 기자

2016전통문화도시 조사·기록화사업 결과발표 및 공유포럼 실시

전주문화재단 오늘 오후 3시

전주문화재단은 2016 전통문화도시 조사·기록화사업의 결과발표 및 포럼을 오는 26일 오후 3시 완판본문화관 인형에서 진행한다.

이 사업은 전주문화재단이 2013년부터 전통문화중심지구내 주민·단체, 문화·상업시설 등의 실제조사를 통한 오늘의 변화과정을 조사·연구기록화 하여 전주시 문화정책 및 실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는 전라강영권역의 주거공간과 문화·상업시설의 변화상을 살펴보는 전수 조사와 전주한옥마을 방문객 및 숙박객들의 한옥마을 이용 실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다.

전라강영 전수조사는 웨딩거리와 차이나타운 팔달로와 인접 지역 내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이를 업종 중심으로

유형화했다. 또 주택 및 빈 건물(점포), 상업시설 운영자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역사가 오래된 가게 10곳을 선정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전주한옥마을 숙박객 만족도조사는 지난 2013년에 실시했던 관광객 조사결과와 비교·분석을 통해 변화추이에 대응하고자 올해는 한옥마을 내 총 250여 곳의 숙박업체 이용객 700여 명을 대상으로 방문행태 및 관광특성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른 공유포럼도 함께 열린다. 포럼에서는 전라강영권역 전수조사 및 전주한옥마을 관광객 만족도 조사결과와 시사점을 발표한다. 이어 좌장 유대수(전주부채문화회관장)의 진행으로 김준영(전주대 건축학과 교수), 정명희(한양대 국제관광대학원 겸임교수), 안영관(한국지역개발연구원), 조석춘(전주한옥속박체험업체회 부회장)의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전주문화재단은 2016 전통문화도시 조사·기록화사업의 결과발표 및 포럼을 오는 26일 오후 3시 완판본문화관 인형에서 진행한다.

전북도청도서관, 신달자 시인과

함께하는 가을밤 북 콘서트

전북도청도서관은 오는 27일 오후 7시 도청 대회의실(4층)에서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여성 시의 영역을 개척해 온 작가로 평가받는 신달자 시인이 초청돼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라는 주제로 20여 분간의 특강을 갖는다. 특강 이후에는 박상미 문학평론가(서울어대 인문영상학부 초빙교수)와 작가의 대화를 통해 작품 세계 및 집필 비하인드 스토리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는 북 토크가 진행된다.

이외에도 해금과 피리 협주, 관객과 작가의 소통을 돕기 위한 질의응답, 저자가 직접 시인한 신간 도서 추천, 시인회 등의 시간도 마련된다.

시인 신달자는 최근 출간한 14번째 시집 <북촌을 비롯하여 >(중) <오래 말하는 사이 >(물위를 걷는 여자 <백치에인>) <나는 마흔에 생의 걸음마를 배웠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등 시와 장편소설, 수필의 다양한 작품을 통해 독자들을 만나고 있다.

북 콘서트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전북도청도서관 전화 280-2451-52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김성권,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 당선

제29대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에 김성권 前전북지구회장(법명 흥법·46)이 당선됐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이다. 김성권 회장은 금산상업고·전주비전대를 졸업하고, 1995년부터 대불청에 입회했다. 전북지구 전수회장(1999·2001·2012)과 전북지구 회장(2013~2016)을 역임했다. 현재는 전북 불교네트워크 운영위원과 '종단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북불교발전협의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김 당선자는 수상소감에서 "존해평(尊海平)이라는 말이 있다. 바다를 존중하면 파도가 평온해진다는 뜻"이라며 "부처님께서 만 중생에 불성이 있고 그 존귀함을 강조하셨다. 모든 불청화원을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존중하면서 공약을 완수해 다 함께 행복의 노래를 부르겠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남궁원·태진아 문화훈장, 송중기·방탄소년단 표창 받는다

영화배우 남궁원과 가수 태진아 등이 문화훈장을 받는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한류붐을 일으킨 송중기와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한국 최고기록을 세우고 있는 방탄소년단도 표창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2016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이 오는 27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이번 대중문화예술상 수상자로는 문화훈장 6명, 장관 표창 9명(팀) 등 총 30명(팀)이 선정됐다. 문화훈장 수상자로는 한·중 합작영화화 청일전쟁과 여걸 민비, 날기 등에 출연해 한국영화의 중국 진출을 위한 초석을 다진 영화배우 남궁원, 한국 영

화사의 한 획을 그은 은막의 스타이자 지미필름으로 영화 제작에도 기여한 영화배우 김지미, 원맨쇼로 한국 코미디의 새 지평을 연 코미디언 남보원 등이 선정됐다.

또 '육경이', '노란 손수건' 등의 노래로 국민의 희로애락을 부른 가수 태진아, '돌아가는 삼각지', '한개 긴 장충단 공원' 등을 작곡하고 가수 배호를 배출한 작곡가 배상태, 드라마 '강희빈', '하늘아 하늘아', '일출봉' 등으로 역사드라마의 기틀을 마련한 방송작가 임종 등도 문화훈장을 수훈하게 됐다. 이 외에도 중국과 동남아 등에 한류의 열풍을 재점화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출연한 배우 송중기, 송혜교와 이 드라마를 집필한 작가 김은숙, 케이팝(K-Pop) 힙합 1세대 가수 보아, 블

루스 음악의 대가 연주자 이정선, 대한민국 대표 코미디언 엄용수, '공포의 외인구단'의 만화가 이현세 등 7명은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무술배우 김백수, 연기자 조진웅과 유아인, 케이팝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 아이돌 그룹 샤이니 등 총 8명(팀)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케이팝 그룹 방탄소년단, 드라마 '질투의 화신' 출연 배우 조정석, 가수 황치열, 뮤지컬 배우 겸 가수 옥주현 등 9명(팀)은 장관 표창을 수상한다.

시상식은 27일 오후 2시30분부터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개최되며 시상식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대중문화예술상 누리집(www.대중문화예술상.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

신간 '2020 시니어트렌드' 출간

'초고령사회 진입'은 전 세계적인 해결 과제다. 50대 이상의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아지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지만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 위기는 얼마든지 기회가 될 수 있다.

신간 '2020 시니어트렌드'는 50대 이상의 인구가 더욱 많아지는 초고령사회의 각종 현상과 문제점을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세세하게 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시장과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할 것인지 전망하고 있다. /뉴스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6년 10월 26일>

▷쥐띠
46년생: 하고자 하는일에 구설수가 따르니 많은 말을 삼가라.
60년생: 경쟁자나 동기간으로 인해 어려움이 따르니 주의하라.
72년생: 어려움이 따르니 뒷사람의 조언을 구하라.
84년생: 일의 능률이 오르는 때이니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소띠
49년생: 겉으로는 서로 웃으나 속은 다름이 많으니 주의하라.
61년생: 분주하기는 하나 분주한 만큼 이득을 얻기는 어려울 운.
73년생: 혼자서는 불가능하나 힘을 합치면 가능한 일이다.
85년생: 뜻밖의 귀인이 도움을 주는 운.

▷호랑이띠
50년생: 외부적으로는 불리한 상황이나 앞으로 나아갈지 말라.
62년생: 가뭄에 시달리다 단비를 만난 격. 예기치 않은 상황 발전.
74년생: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라.
86년생: 욕심을 부리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는 운.

▷토끼띠
51년생: 힘든 상황에 놓였던 사람은 한숨 돌릴 수 있겠다.
63년생: 도처에 귀인이 있으니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된다.
75년생: 모질고 귀를 함들게 하는 소리가 도움이 되는 운.
87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다.

▷용띠
52년생: 동기간의 도움을 받으면 생각보다 쉽게 이룰 수 있다.
64년생: 남자는 여성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76년생: 들을 얻었으면 하나를 보내야 하는 운이니 질척은 금물.
88년생: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부리면 화가 발생.

▷뱀띠
53년생: 매사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운.
65년생: 예상보다 상황이 좋게 돌아갈 수 있으니 실망하지 마라.
77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몸의 작은 신호에도 주의.
89년생: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평안하게 지나가는 운.

▷말띠
54년생: 주변에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생기는 운이다.
66년생: 지나치게 나서면 구설수가 따르게 되니 상황에 맞춰라.
78년생: 주변 상황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운.
90년생: 억의 없이 행동한 일에 관련한 상황이 발생하는 운이다.

▷양띠
55년생: 내부에서는 결단이 필요한 때다.
67년생: 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이 되는 운.
79년생: 다른 사람과 부딪힐 수 있는 운이니 주의하라.
91년생: 변동하면 행통하고 좋아지니 망설이지 마라.

▷원숭이띠
55년생: 사고수를 조심해야 하는 때. 원형을 삼가는 것이 좋겠다.
69년생: 금전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 주의하라.
81년생: 구설수, 시비가 따르니 언행을 삼가라.
93년생: 지나친 과단은 주위 사람들의 문제를 이기하니 조심하라.

▷닭띠
57년생: 봄에 수확을 하려는 격이니 때를 기다려라.
69년생: 지금 현재는 답답하고 힘들다 차츰 운이 좋아질 것이다.
81년생: 변해 변화에 무리하지 말고 잘 적응해 나가라.
93년생: 천우신조가 있으니 매사에 순리대로 진행하라.

▷개띠
48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다. 상황을 잘 살펴서 경각심갖고 지내라.
60년생: 여자와 상대하면 반목이 많이 일어 잘 풀리지 않으니 주의.
72년생: 시비가 따르니 불화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뒤로 물러서라.
84년생: 좋지 않은 일이 몰려 다가오는 운이다.

▷돼지띠
47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가 예상되는 운이니 주의하라.
59년생: 움직이면 이득이 있고 머물면 손해가 따른다.
71년생: 성공하게 행동하기는 일이 풀리지 않을 운이니 조심하라.
83년생: 매사 모든 일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 후에 움직여라.